

섬유·반도체 세계 제패 효성·삼성...성공 비결은 도전정신

진주서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선대 경영자 경영철학 공유 효성·삼성·LG·GS가 '4대 기업 세션'...해외 참가자 등 큰 관심

"섬유 산업은 1970년대 사양산업으로 꼽혔지만 조석래 효성 선대회장은 스판덱스 기술 개발에 집중하면서 미국을 넘어서 세계 1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지난 30일 진주에서 열린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에서는 효성을 비롯해 삼성, LG, GS 4대 선대 경영자들의 도전 정신과 이를 통한 성공 전략이 소개됐다. 4개 기업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섬유, 반도체 시장 등에서 세계 1위에 오른 배경에는 선대 기업인들의 이야기는 다양한 계층의 관심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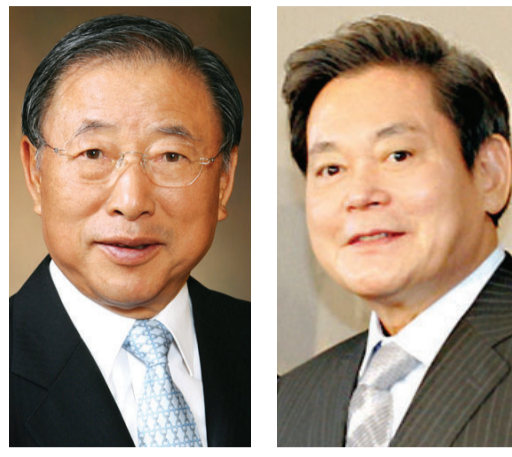
진주는 효성그룹을 창립한 고(故) 조흥제 회장과 삼성을 만든 고(故) 이병철 회장을 비롯해 LG와 GS 창업주들이 어릴 적 자란 곳으로, 4개 기업

을 비롯해 국내외 석학, CEO 등이 모여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효성, 삼성, LG, GS가 '4대 기업 세션'을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K-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김수영 효성인력개발원장, 이정일 삼성글로벌리처치 상근고문, 김재문 LG 경영연구원 부원장, 최누리 GS 전무가 연사로, 김명수 매경닷컴 대표가 좌장으로 나서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는지에 대한 경험과 전략을 공유했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인 세션에서 연사들이 공동적으로 언급한 기업



조석래 효성 선대회장 | 이근희 삼성 선대회장

성공의 비결은 도전 정신이었다. 창업주와 선대회장 등의 도전 정신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된 세션에서 김수영 효성인력개발원장은 효성그룹의 성공 배경 중 하나인 사양산업에서 신

성장동력을 발굴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 원장은 "섬유사업에 집중하던 효성은 섬유가 1970년대부터 사양산업으로 분류됐지만, 1990년대부터 스판덱스 기술 개발에 집중해, 결국 그룹의 캐시카우 기능을 하고 있다"며 "스판덱스 시장을 장악한 미국 듀폰도 이겨낼 수 있다는 조석래 선대회장의 도전 정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효성은 현재 전 세계 스판덱스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반대에도 극복한 성공신화 이야기도 나왔다. 이상일 삼성글로벌리처치 상근고문은 "삼성전자의 창립과 반도체 사업은 기업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극심했다"며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근희 선대회장의 선견지명과 도전 정신이 성공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설립 당시(1969년) 국내 경쟁사와 정지권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내수가 아닌 세계 시장을 목표로한 진취적인 경영 전략 덕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이밖에도 LG 구분부 선대회장의 가전산업에 대한 특목 도전과 GS그룹의 뿌리가 되는 허만정 선생의 투자, 동반자 정신도 제시됐다.

'K-기업가 정신 국제포럼'에는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조규일 진주시장, 오준 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 이만 타라비쉬 세계중소기업협회(ICSB) 회장, 스티브 영 폭스콘테크놀로지(CRT) 사무총장, 이주옥 세계경제포럼(WEF) 아태지역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학생과 기업인, 시민 등도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K-기업가정신은 단순한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강력한 가치"라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출발점이 되어 진주 국제포럼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포럼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출시 금융상품 대박행진

토스뱅크 '함께대출' 700억 돌파 KIA타이거즈 예·적금 판매 급증 지역상생 기반 상품 지역민 호응

광주은행이 올해 내놓은 상품마다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고불가·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타지역 대비 열악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 개선 및 지역 스포츠 구단과 연계한 상품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함께 출시한 공동대출 상품 '함께대출'이 출시한 달만에 700억원을 돌파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함께대출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출시한 상품으로, 광주은행의 자금력과 디지털플랫폼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객 유치에 장점을 지닌 토스뱅크가 함께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금융 소

비자가 토스뱅크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각각 대출 심사를 한 뒤 대출도와 금리를 결정해 자금을 절반씩 부담한다. 상품 가입대상은 현재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증빙연소득 1000만원 이상인 급여 소득자다. 대출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광주은행은 상품 출시 1개월 내 700억원을 돌파한 배경에 비교적 충족하기 쉬운 가입대상 조건 및 최저 연 4.87%(2024년 9월 30일 기준 변동금리)의 낮은 대출금리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해당 상품을 통한 신규 대출 실행건 중 70% 이상이 생활안정자금 및 타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상환 목적으로 실행돼 향후 상품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은행들이 점포 축소를 통한 비용 효율화 추세에 따라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이 4년 새 광주·전남 점포 수를 30개 줄이는 등 지역민들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토스뱅크 앱을 통한 간편한 대출 절차 및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역민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은행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상품 가운데, 'KIA타이거즈 예·적금' 상품 역시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팀 KIA타이거즈가 정규 시즌을 우승하고,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광주은행이 지난 2018년 처음 선보인 'KIA타이거즈 예·적금'은 KIA타이거즈의 시즌 성적에 따라 최대 4.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올해 판매액도 출시 6년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해 KIA타이거즈 예·적금 판매액은 지난 6월 기준 337억1438만원으로, 전년 동기(1991억8576만원) 대비 69.6% 많았다.

같은 기간 예·적금 판매 좌수 역시 1만5666좌에서 2만6075좌로 66.4% 뛴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함께대출과 KIA타이거즈 예·적금 등의 상품들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은 지역민들이 필요로하는 금융서비스를 적기에 내놓은 데 따른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품을 비롯해 지역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광주전남중기청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ESG 교육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일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지역 기업의 ESG 대응사항을 해소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ESG지표의 개념, 공통평가지표, 자동차·가전 등 산업별 세부지표에 대한 안내로 구성되어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에게 제공했다. 또 ESG 동향과 공시기준, 경영 우

수사례, 중소기업의 전략수립 방안, 미래차 분야 지표 세부 실행방안 등을 설명했다.

광주전남중기청은 ESG 현장방문 코칭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을 연결, 기업 수요에 맞는 1대1 ESG 코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종래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업경영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GICON, 광주에이스페어 공동관 운영 성료

지역 캐릭터 기업 6곳 참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1일 "지난달 26일부터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광주에이스페어'에서 광주콘텐츠코리아랩 공동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광주에이스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로, 올해까지 19번째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GICON이 운영한 공동관 전시에는 캐릭터 부문에서 '폴로피즈', '화투패', '리안소프', '울트라그린', '주식회사 메리버스터디오'가 웹툰 부문에는 '비에스' 등 총 6개 지역 기업이 참여했다.

해당 기업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즉석 캐릭터 처 그리기, 자사 캐릭터 옷입히기 체험, 굿즈 뽑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지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콘텐츠가 중국·홍콩·대만·페루·멕시코·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국내·외 콘텐츠 제작·유통사 바이어들의 눈길을 끌며 35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주식회사 메리버스터디오는 자사 캐릭터IP로 홍콩 콘텐츠 제작·배급사와 15만 달러의 투자지원 및 150만 달러 규모의 제작 계약을 성사 시켰고, 태극·대만 제작사와 캐릭터 제작, 배급, 투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향후 협력하기로 했다. 또 울트라그린은 대만의 방송배급사와 '우주택배' 애니메이션 방영 및 공동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광주콘텐츠코리아랩 기업들이 초기창업기업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캐릭터IP 기업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내·외로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yang@kwangju.co.kr

현대차 창립 57년 만에 누적 생산량 1억대 달성

현대차가 창립 57년 만에 전체 누적 생산량 1억대를 달성했다. 현대차의 1억대 생산 위업은 전세계 글로벌 완성차 기업 가운데 가장 빠른 기록이다.

현대차는 1일 "올해 9월 누적 생산 차량이 1억대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고(故) 정주영 선대회장이 1960년대 국도 재건과 국내 도로 확충을 계기로 미국 포드와 제휴 협상을 거쳐 1967년 12월 설립했다.

현대차는 창립 1년 만인 1968년 11월 울산 조립 공장에서 1호 차량 '코티나'를 만들었다. 포드의 코티나 2세대 모델을 국내에 들여와 조립 생산을 시작한 것이다.

1975년 국내 최초 독자 모델 '포니'를 양산해 자동차의 대중화를 마련한 현대차는 이에 힘입어 1986년 전 차종 100만대 생산을 돌파했다. 포니는 1976년 한국 승용차 최초로 에코라드 등 해외에 수출된 차종이다.

1986년에는 국내 첫 전륜구동 승용차 '포니 엑셀'이 자동차 본고장 미국에 수출됐다. 현대차는 이후 1996년 생산 1000만대를 달성한 데 이어 튀르키예, 인도, 미국 앨라배마, 체코 등 해외 공장에서 차량 생산을 본격화하며 2013년 누적 생산 5000만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9년 8000만대, 2022년 9000만대 생산 고지를 뚫었다.

196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 아반떼(1537만대)였다. 이어 엑센트(1025만대), 쏘나타(948만대), 투싼(936만대), 산타페(595만대) 등이 뒤를 이었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1억대 누적 생산의 성과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현대차를 선택하고 지지해준 수많은 글로벌 고객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대차는 10일부터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누적 생산 1억대 달성을 기념하는 전시회도 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음합산업진흥회, 첨단산업 혁신기술 세미나

산·학·연·관 기술 동향 공유

한국광음합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지난 달 26일 광음합산업 진흥포럼과 함께 반도체 산업의 시장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4 첨단산업 혁신기술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자율주행 인지센서, 유전 디스플레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현황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자동차연구원 노형주 실장은 "자율주행 인지 센서 기술 현황 및 센서 반도체 전망"을 주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의 현재 수준과 시장 동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박근오 코리아 스펙트럴 프로덕츠 부사장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차세대 반도체 기술 동향" 주제의 발표를 통해 국가별 반도체 수요 비중과 생산능력을 분석해 반도체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수자원공사 영섬본부, '물산업 현장 체험' 개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1일 "물산업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물산업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물산업 현장 체험은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시설물과 시스템을 견학하고,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시설 견학을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섬본부는 주안면부터 화순 정수장까지 지역 물공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국폴리텍대학 학

생들에게 실무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장은 "이번 '물산업 현장 체험'은 물관리 시설물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 학생들이 물관리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이를 통해 지역인재가 성장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체험에 이어 10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물산업 관련 전문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